

선운사, 서남권 복지 허브로 거듭난다

1월 2일 교계 최고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영유아 보육을 비롯한 전북 서남권의 복지 허브로 거듭난다.

고창 선운사는 1월 2일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결을 결정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김인호)에서 수탁업체로 선정됐다. 지역내 보육관련 서비스를 총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2014년 전국 7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고창 선운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불교계 최초다.

선운사가 운영하게 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780제곱미터(235평)에 2층 규모로 상담실과 놀이체험실, 도서대여실, 교육장 등이 들어선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보육시설 지원과 보육교사 교육을 전담하며 전문적인 육아상담과 정보 제공, 맘스카페 운영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센터에서 영유아의 놀이 체험 및 장난감과 도서 대여 등 보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선운사는 맞춤형 양육·보육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내외의 정비를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근에는 고창군 뉴타운이 들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육아종합지원

연면적 235평에 2층 규모의 전문시설 상담실·놀이체험실·교육장 등 구비
인근 뉴타운 연계 종합복지타운 구성

센터 설립으로 지역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선운사는 그동안 운영 중인 청소년부터 노인까지의 복지, 문화, 보육 프로그램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계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고창군 뉴타운 인근에 세워진 선운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경. 뉴타운 공사가 완료되면 도심교외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선운사는 지난해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센터 인근 고창군 뉴타운 내 1,200여평의 토지 매입을 완료한 바 있다. 선운사는 이 곳에 불교회관을 건립하는 한편, 청소년문화센터 및 북카페, 귀농지원센터, 시민선방 등을 건립하고 종합복지타운을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선운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산내암자인 도솔암을 건립지원 사찰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선운사복지재단은 고창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선운사 관계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새로 수탁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선운사 복지법인이 경쟁력을 갖추었고, 그동안 시설운영 평가가 좋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라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북평화통일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속초 선운사, 1월 6일 신년하례법회 개최

속초 선운사(주지 우송)는 1월 6일 선운사 설법전에서 신년 하례 법회와 시무식을 봉행하고 국제 민간과 국민 화합,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선운사 주지 우송 스님과 낙산사, 백담사, 심원사, 진전사 등 말사 주지 스님, 반야노인 요양원과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 선운사 복지재단 임직원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우송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양은 서로 화합하는 운운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진취적인 동물이니, 선운사 대중들은 서로 화합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정진으로 뜻 깊은 해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제 고집만 세우서는 화합과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광주불교연합회, 전통 등 강습회

광주지역 전통등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강습회가 개최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영광)는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지원으로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광주불교회관에서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했다.

강습회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전영일 씨가 강사로 나섰다.

이번 강습회는 전통등 만들기 활성화되지 않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일반시민들

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렸다. 9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골조만들기, 배접, 그림그리기 등이 진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영광)는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지원으로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광주불교회관에서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했다. 강습회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전영일 씨가 강사로 나섰다. 이번 강습회는 전통등 만들기 활성화되지 않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일반시민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안성 영평사, 故 박정희 대통령 내외 추모법회

안성 영평사(회주 정립)는 1월 1일 새해를 맞아 故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추모하는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前유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일가 친척들이 참석했다.

영평사는 지난 2012년 6월 경내에 故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추모관을 건립한 데 이어 매년 새해 첫날 추모법회를 열고 있다.

영평사 회주 정립 스님은 “박 前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해석을 떠나 조국 근대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데 대한 존경심으로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했다. 한편, 안성 영평사 경내에 마련된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의 추모관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활동사진 270여점과 친필 글씨 등이 전시 돼있다. **노덕현 기자**

광주지역 구의원, 불교계 복지관서 봉사

새해를 맞아 지역구 의원들이 불교계 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은 1월 5일 광주광역시 구의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 급식을 진행했다. 복지관 관계자

는 “광산구는 광주에서 가장 열악한 저소득계층이 많은 곳으로 지역 의회 의원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불교계 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보물 지정

17세기 보살상 양식적 특징 보여줘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 목조보살입상이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1월 2일 전북 유형문화재 제218호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이 국가지정 문화재 제1842호 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보물 제1842호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은 석가여래삼불좌상을 협시(脇侍, 본존불을 좌우에서 보좌하는 불상)하는 4구의 보살상 가운데 하나로 조선 후기 불전 봉안 형식을 이해하는데 자료가 된다.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은 원오(元悟) 스님이 수조각승(首彫刻僧)을 맡아 1605년에 제작한 불상으로, 17세기 초 조각승들의 활동과 조각 전통의 계승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보살입상은 고개와 복장(腹藏)을 약간 앞으로 내민 채 정면을 향한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불안(佛顔)은 이마 부분이 넓고 사각형에 가까우며 눈은 두툼한 편이다. 불두(佛頭)에는 이마에 보발(寶髮)이 한 줄 표현되고 가늘고 긴 상투가 남아있다.

익산 관음사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창건됐으며 설립 당시 이름은 동본원사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였으며 사전에 따르면 목조보살입상은 사찰 창건 시 옮겨온 것으로 전해진다.

2008년 10월 17일 보살상 이운 과정에 보살상의 밑 부분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불상 조성기를 비롯해 후령통과 법화경등 경전이 발견되면서 1605년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파란 눈의 외국인들, 법주사서 템플스테이

미 중서부 대학 한국 체험단, 1월 4~9일 불교문화 체험

보은 법주사에서 파란눈의 외국인들이 한국전통과 불교문화 체험에 나섰다. 미국 시카고 대학 등 중서부에 위치한 명문 8개 사립대 교수 및 학생 한국 체험단 15명은 1월 4일부터 9일까지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미국 내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국체험단은 한국과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과정 중 하나로,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를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난 2012년 방한한 바 있는 한국체험단은 12월 27일 방한해 18일 동안 국내외의 정치, 문화, 사회 등을 익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법주사 템플스테이 뿐만 아니라 DMZ 방문, 서울 장덕궁, 남산 한옥마을, 현대자동차·삼성·POSCO 참관, 김구

박물관, 서대문 형무소, 위안부 소녀상, 한국 전쟁 국립박물관 관람 등을 진행했다.

지도교수를 맡은 세인트 엠브로스(St. Ambrose) 대 정치학과 김덕향 교수는 학생들에게 한국만의 독특한 정치체계, 문화 등을 소개했다.

김덕향 교수는 “한국이 고대 수많은 전란과 동족 상잔의 아픔에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문화를 비롯한 민족의 사상과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이런 점을 익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미 중서부 대학 학생들이 한국의 선진기술과 템플스테이를 통해 놀라운 불교 문화 유산을 경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법주사 템플스테이에는 미국 중서부 지역 대학의 학생 15명이 참여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원인 모를 질병!! 원인을 바로 알면 방법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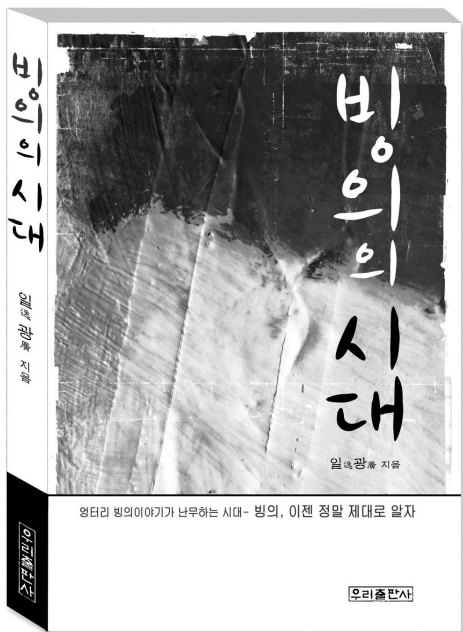
- 본인 또는 부모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

정보 홍수의 시대 - 바로 알고 노력하면 하늘도 도와준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인간의 병에 세 가지가 있으니, ①지수화풍의 불균형, 즉 생활습관이나 음식의 문제로 생기는 병 ②전생의 업으로 인한 병 ③귀신으로 인한 병이 그것이라 했다. 이에 일광선생은 말한다. “지수화풍에 의한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으나, 업으로 인한 병이나 귀신으로 인한 병은 오로지 도통한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

- ▶ 8세 미만의 자폐증, 뇌성마비 환자
- ▶ 정신질환자(병의된 경우가 70%, 일반 질환이 30%로 추정됨)
-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 음식을 잘 못먹고 몸은 아픈데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없는 분
-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질병의 원인을 알고 싶은 분은 010-5040-7679 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지은이 / 일광(逸廣)
신국판 / 312쪽
우리출판사 313-5047 / 9,500원

저자 일광(逸廣) 선생은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주유하면서 도(道)를 참구해온 일광선생께서 문득 회통의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였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사후세계가 우주 자연의 인과의 법칙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선생은 불치환자들의 병의 근원을 보고 병고와 생활고 등으로 평생 명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책을 썼다.